

제2절 역·원 유적

울진, 평해의 역·원과 그 위치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역원조에 나타나 있다.

(울진)

흥부역(興富驛) 고을 북쪽 32리에 있다. 청심당(淸心堂)이 있다.

덕신역(德神驛) 고을 남쪽 45리에 있다. 영희정(迎曦亭)이 있다.

○ 이곡(李穀)의 시에, “해가 부상에서 떠서 두 장대[竿]나 올라왔는데, 한쪽에는 북 두칠성이 아직도 비겼네. 바람에 갈리고 비에 씻겼으니 텔끝도 깨끗하고, 안개 흩어지고 구름 걷혔으니 안계(眼界)도 넓구나. 혼자 생각해도 우스운 일, 세상 물정은 바닷속 처럼 알 길 없는데, 학술을 가르침은 물결 볼 줄 알겠네. 분분하게 남쪽 북쪽에 오가는 사신 많은데, 이곳을 보통 역사(驛舍)로 보지 말게나.” 하였다.

수산역(守山驛) 고을 남쪽 12리에 있다.

가을원(加乙院) 고을 북쪽 40리에 있다.

두천원(斗川院) 고을 서쪽 25리에 있다.

소조원(召造院) 고을 서쪽 65리에 있다.

광비원(廣庇院) 고을 서쪽 90리에 있다.⁶⁹³

(평해)

달효역(達孝驛) 고을 동쪽 5리에 있다.

평등원(平等院) 고을 남쪽 13리에 있다.

다시원(多施院) 고을 서쪽 45리에 있다.

망양원(望洋院) 고을 북쪽 42리에 있다.⁶⁹⁴

이상의 역·원을 앞 절에서 살펴본 교통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은 강릉에서부터 동해안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배치되어 있다. 흥부역-(울진현)-수산역-덕신역-달효역-(평해군)의 순서이다. 원 중에도 이 남북 교통로에 위치한 것들도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키면 가을원-흥부역-(울진현)-수산역-덕신역-망양원-달효역-(평해군)-평등원의 순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울진과 평해에서 출발하는 동서 교통로에 위치한 원들이 있다. 울진에서

693. 『신증동국여지승람』권45,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울진현 역원

694. 위 책,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평해군 역원

출발하는 길은 두천원-소조원-광비원을 경유하여 봉화(소천면, 법전면, 춘양면, 봉성면, 봉화읍)로 이어지며, 평해에서 출발하는 길은 다시원을 경유하여 영양(수비면, 일월면, 영양읍)으로 이어진다. 역·원의 위치는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하지만, 유적이 확인된 것은 거의 없다. 금강송면 외선미리에서는 원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조사되어 다시원지로 비정(比定)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교통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 역·원의 위치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1. 동해안로(평릉도, 평해로)

1) 가을원(加乙院)

조선 후기가 되면 원(院)은 더 이상 국가에 의해 관리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주막 또는 주점에 넘겨주게 된다. 따라서 지명으로만 남게 되거나 지명조차 남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을원은 대체로 후자에 해당한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통해 대체적인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강릉에서부터 내려오는 동해안로는 삼척을 지나 갈령을 넘어 울진 경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갈령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가을현(加乙峴)⁶⁹⁵이라고 되어 있으며, 가을원은 그로부터 대략 4리 거리에 있었다. 갈령이 울진-삼척 경계의, 울진북로와 삼척로가 만나는 자유수호의 탑 부근이라고 한다면, 가을원은 과거 태봉동(胎封洞), 현 나곡4리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달효역(達孝驛)

현 평해면 월송리에 있었다. 월송리는 1914년 화구리(花邱里), 달효리(達孝里), 정산리(井山里), 오곡리(梧谷里) 등을 통합하여 만든 것인데,⁶⁹⁶ 달효리는 그 중심으로 월송초등학교 일대였다. 월송초등학교 앞에는 월송리 비석군이라고 하는 6기의 조선 후기 비석이 있었는데, 2010년 이전하여 현재는 봉평리 봉평 신라비 전시관 비석거리에 배열되어 있다. 비석이 있었던 곳, 즉 월송초등학교 부근이 역 자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 덕신역(德神驛)⁶⁹⁷

현 매화면 덕신리에 있었다. 덕신리는 1914년 후리동(厚理洞), 덕신동(德新洞), 항곡동(項谷洞) 등을 통합하여 만든 것인데,⁶⁹⁸ 덕신동은 덕신해변의 현 덕신1리에 해당한다.

695. 『신증동국여지승람』권45,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울진현 산천, “가을현(加乙峴) 고을 북쪽 44리에 있다.”

696. 越智唯七, 1917, 앞 책, 蔚珍郡

697. 德神驛은 德新驛으로 쓰기도 하나 德新驛은 남해에 위치한 소촌도(召村道)에 속한 역이기도 하다.

698. 越智唯七, 1917, 앞 책, 蔚珍郡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 전기에 이곳에 청심당(淸心堂)이 있었고, 이곡(李穀) [1298~1351]이 쓴 시가 전한다.

4) 망양원(望洋院)

현 기성면 망양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망양원 역시 가을원과 같이 조선 후기 자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망양정을 통해 대체적인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망양정은 평해 북쪽 40리에 있다고 되어 있고,⁶⁹⁹ 망양원은 42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조선 전기 망양정의 위치는 망양리 중에서도 근세 지형도에 망양리라는 지명이 표기된 곳, 현재 망양정 옛터 정자가 세워진 곳이다. 망양원은 그로부터 북쪽 2리 정도에 있었을 텐데, 조선시대 평해에서 읊진으로 넘어가는 객망치(客望峙)[현 망양휴게소] 남쪽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5) 수산역(守山驛)

현 근남면 수산리에 있었다. 왕피천 하구 부근에 해당하는데 그 도하 지점의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왕피천 하구는 조선 전기에는 수산천 혹은 울진포라고 하였으며,⁷⁰⁰ 여기에는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이 설치되어 중종 25년(1530)에 석성을 쌓았다.⁷⁰¹ 조선 후기에는 폐지되었는데, 수산역 동북쪽의 비래봉(飛來峰)에 해당한다.

6) 평등원(平等院)

평해에서 길을 따라 남쪽으로 13리 지점이라는 것 외에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참고로 앞에서 인용한 『여지도서』 기록을 보면, 평해 남쪽으로의 여정이 관곡리(현 학곡 2리) 까지 5리, 관곡리에서 울현리까지 5리, 울현리에서 경상도 영해부 경계까지 10리로 되어 있다. 대체로 후포면 삼율리 후포면사무소가 있는 부근이 아닐까 생각된다.

7) 흥부역(興富驛)

현 북면 부구리에 있었다. 부구리는 1914년에 흥부동(興富洞), 염구동(鹽邱洞) 등을 통합하여 만든 것이다.⁷⁰² 흥부동은 상흥부동, 중흥부동, 하흥부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구중학교가 있는 쪽이 상흥부동이고, 도로변 부구초등학교 일대는 근세 지형도에 시동(市洞)으로

699. 『신증동국여지승람』권45,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평해군 누정, “망양정(望洋亭) 고을 북쪽 40리에 있는데 동쪽은 큰 바다에 임하였다.”

700. 『신증동국여지승람』권45,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울진현 산천, “수산천 고을 남쪽 11리에 있다. 울진포(蔚津浦)라고 한다.”

701. 위 책,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울진현 관방(關防), “울진포영(蔚珍浦營) 수군만호 1인이 있다. 『신증』 정덕(正德) 임신년(중종 7)에 성을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7백 50척, 높이 11척이다.”

702.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 蔚珍郡

표시되어 있다.⁷⁰³ 여기가 역 부근에 형성된 장터가 있었던 곳이며, 다만 역의 정확한 위치는 분명하지 않다. 부구리에는 관찰사와 칠방의 선정비가 6기 있었는데, 현재는 울진봉평신라 비전시관 비석거리로 이전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 전기에는 이곳에 청심당(淸心堂)이 있었으며, 조선 후기 고지도에는 관(館)과 흥부고(興富庫)가 표시되어 있다.⁷⁰⁴

2. 울진-봉화로(십이령로)

1) 광비원(廣庇院)

현 금강송면 광회리에 있었다. 광회리는 1914년 광비동(廣比洞), 거응동(巨應洞), 남회룡동(南回龍洞)을 통합하여 만든 것인데,⁷⁰⁵ 광비동은 현재의 광회1리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고채비재[고처비령, 꼬치비재]를 넘으면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다시 맷재와 배나들재를 넘으면 소천면 현동리(안동의 屬縣인 小川部曲 혹은 小川縣의 중심지), 다시 노릇재[獐峴]를 넘으면 법전면 소천리(召川里)에 도달한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면 바로 춘양(春陽)이고, 서쪽으로 가면 봉화현(奉化縣)의 치소였던 봉성면 봉성리[구 봉화]와 안동의 속현인 내성현[奈城縣 혹은 乃城縣]이 있었던 현 봉화읍에 도달한다.

2) 두천원(斗川院)

이하 3원은 조선 후기 지명으로도 확인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두천원은 현 북면 두천리에 있었다. 여기에는 울진 내성행상 불망비(乃城行商不忘碑) 2기가 있다. 내성은 안동의 속현(屬縣)이었던 내성현(乃城縣)[현 봉화군 봉화읍]을 말하며, 내성의 행상들이 그 우두머리인 접장(接主), 반수(班首)의 은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즉 내성의 행상들이 이 길을 통해 울진 또는 흥부역의 장까지 왕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천원은 12개의 고개를 넘는 십이령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3~6번 째 고개인 바릿재[發峴洞], 샛재[鳥峙], 너삼밭재, 저진터재[這進峙, 猪盡基]를 넘으면 소조원이 있었던 소광리로 이어진다.⁷⁰⁶

3) 소조원(召造院)

현 금강송면 소광리에 있었다. 소광리는 1914년 소조동(召造洞), 광천동(光川洞), 후곡동

703. 朝鮮總督府,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興富洞

704. 『廣輿圖』; 『輿地圖』, 蔚珍縣

705. 越智唯七, 1917, 위 책, 蔚珍郡

706. 이하 한자 표기는 朝鮮總督府,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흥부동, 석포, 삼근 도엽에서 확인한 것임.

(後谷洞)을 통합하여 만든 것인데,⁷⁰⁷ 소조동은 현재의 소광2리에 해당한다. 근세 지도를 보면 여기에 원기(院基)라는 지명이 나타나 있는데, 대체로 이 지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새넓재[한나무재], 큰넓재[廣峙]를 넘으면 광비원이 있었던 광회리로 이어진다.

3. 평해-영양로

1) 다시원(多施院)

평해에서 길을 따라 서쪽으로 45리 지점이라는 것 외에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여지도서』의 평해 서쪽으로의 여정을 보면, 관문에서 선미[외선미리]까지 30리, 선미로부터 주령[구주령], 신촌[본신리]을 지나 영양현 경계[본신리와 신원리의 경계]까지 20리이다. 구주령까지는 대체로 40리가 되므로, 다시원은 주령에서 영양계 사이, 대체로 본신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구질리현(仇叱里峴)이 고을 서쪽 41리에 있다고 했는데,⁷⁰⁸ 이것이 바로 구주령일 가능성이 크다.

2) 호원적원(戶元迪院)

2005년 온정면 외선미리에서는 원으로 추정되는 터가 발굴 조사되었다. 출토 유물은 대체로 고려 후기에서 여말 선초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호원적원(戶元迪院)’이라 적힌 와편이 출토되었다.⁷⁰⁹ 조사단에서는 이것을 다시원지로 추정하였으나, 바로 앞에서 논의한 대로 다시원은 구주령을 넘어서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록에 나오지 않는 별개의 원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성현

707. 越智唯七, 1917, 앞 책, 蔚珍郡

70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평해군 산천

70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7, 『울진 외선미리유적』